

K-PRINT 2022 REVIEW

최신 인쇄기술이 한자리에 총망라되는 국내 유일의 인쇄산업 전문전시회 ‘K-PRINT 2022’가 지난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주)한국이앤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

관광공사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K-PRINT 2022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해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giPrint), 한국텍스타일전시회(K-Textile), 한국사인·광고전시회(K-Sign&AD)를 통합 개최하며 관련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인쇄/패키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K-PRINT 2022는 인쇄, 라벨, 패키지, 텍스타일, 사인 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제품 출시를 미뤄왔던 디지털인쇄 관련 제조사들이 코로나 이후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 업그레이드한 인쇄/라벨/패키지/사인 관련 장비들을 대거 선보였다. 융복합 인쇄기술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벨/패키지 관련기기, 인쇄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비롯해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디지털인쇄, 텍스타일 인쇄, 포장인쇄 관련 첨단기술들이 눈길을 끌었다.

K-PRINT 2022에서 소개된 ▲디지털 라벨&패키징 장비, ▲로터리/플렉소 라벨인쇄 장비, ▲패키징 솔루션 및 박스 패키징 기술, ▲후가공 솔루션 분야의 출품 동향을 통해 패키징 인쇄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디지털 라벨&패키징 장비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라벨과 패키징 분야에서 소량다품종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키워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여러 브랜드의 장비들이 국내에 처음 선을 보였다. 엡손, 딜리, 코니카미놀타, 리코, 벨로이, 바이텍 테크놀로지 등에서 디지털에 최적화된 라벨과 패키징 장비들을 선보였다.

한국엡손(주)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글로벌 IT기업 엡손의 한국법인 한국엡손(주)은 이번 전시에

서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엡손 SurePress L-6534VW 디지털 라벨 인쇄기와 함께 오피스용 비즈니스젯 장비 제품군, UV 평판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프린팅 솔루션들을 출품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미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SurePress L-6534VW 디지털 라벨 인쇄기는 국내 총판을 맡은 (주)상동화 전시 부스에서 시연과 함께 전시 첫 날 공식 론칭 행사를 가졌다.

이 장비는 최대 분당 50m의 속도와 최대 600x1200dpi의 해상도를 자랑한다. 엡손의 기술력으로 만든 Precision Core 프린트헤드와 드럼구조를 통해 정밀한 인쇄가 가능하다. 원단과 프린트헤드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혀주는 드럼구조로 보다 섬세한 인쇄가 가능하며, 원단의 이탈을 막아서 정확한 위치에 잉크를 경화시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엡손의 기술력으로 만든 화이트 잉크는 높은 차폐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원단에 인쇄했을 때에도 생생한 색감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 한국엡손(주)이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엡손 SurePress L-6534VW 디지털 라벨 인쇄기

EXHIBITION

바니시 잉크를 선택해 광택이 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 ‘리버스 인쇄지원’을 통해 먼저 4색(C, M, Y, K) 인쇄 후 흰색을 덧입히는 인쇄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인쇄가 가능하다.

VDP(Variable-Data Printing, 가변데이터 인쇄)를 통해 다양한 포맷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으며, 3L의 대용량잉크를 2개 탑재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인쇄 중단시간을 줄여준다.

상동화 관계자는 “고품질 화이트 잉크와 디지털 바니시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인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해, 론칭 이전부터 많은 라벨 분야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딜리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인쇄 솔루션 전문기업 (주)딜리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소재에 정밀하게 고속 출력이 가능한 더욱 향상된 차세대 디지털 라벨프레스 네오피카소 플러스, 색 표현력과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산업용 평판 UV프린터 장비 및 경제성을 살린 하이브리



▲ 차세대 디지털 라벨프레스 등 다양한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제품들을 선보인 (주)딜리

드형(롤소재+판소재 출력 가능) UV프린터까지 다양한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제품들을 선보였다.

UV 디지털 잉크젯 라벨프레스인 네오피카소 시리즈의 신제품인 네오피카소 플러스는 7도 인쇄(CMYK (GOV 중 2선택) + 더블화이트)를 지원하며, 향상된 웹 컨트롤 기능으로 PP 클리어링 및 연포장 소재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정밀한 인쇄가 가능하다. 프린트 출력 폭 최대 330mm, 분당 인쇄 속도 50m로 업계 최고 수준의 고속 출력을 지원하여 매우 빠른 출력 속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인쇄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쇄물의 차폐력이 매우 뛰어나다. 핀큐어링 기능을 통해 작은 글씨와 가변데이터도 선명하게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며, 코로나 시스템 탑재로 5KW 용량의 강력한 전처리 기능을 구현한다. 또, 웹 클리닝 시스템, 정전기 제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넓은 범위의 소재를 지원하며, 유럽 제조의 친환경 UV 잉크를 사용한다.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스 코리아(주)

148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IT기업 코니카미놀타의 한국법인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스 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전시에서 프리미엄 디지털 인쇄기 아큐리오프레스(AccurioPress) C14000과 스마트 디지털 컬러 인쇄기 아큐리오프레스 C4080, 폭 넓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지털 인쇄기 아큐리오프레스 C7100, 디지털 흑백 프로덕션 프린팅 시스템 아큐리오프레스 6136 등의 장비들을 샘플과 함께 선보였으며, 코니카미놀타의 국내 대리점인 (주)성

산테크 부스에서는 디지털 라벨 인쇄기 아큐리오라벨(AccurioLabel) 230을 전시했다. 디지털 라벨 인쇄기 아큐리오라벨 230은 분당 23.4m의 등속 인쇄가 가능하며 3,600(상당)x1,200dpi, 8비트 해상도의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자랑한다.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서 아날로그 라벨 인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플레이트 교환과 같은 작업 준비 시간을 6분의 1 정도 감소시켜 생산성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아큐리오라벨 230은 그동안 디지털 라벨 프레스에서 정확한 구현이 어려웠던 가는 선 및 작은 텍스트를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어 작은 글씨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라벨 인쇄에 효과적이다. 코니카미놀타만의 독자적인 저온 정착 기술의 Simitri HD 디지털 토너로 일반 비광택 용지뿐만 아니라 라벨 인쇄에 필수적인 광택 용지, 점착 용지, 필름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디어와 호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위치를 측정하는 아이마크 센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사전 인쇄된 미디어에 오버프린팅이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생산을 지원한다.

코니카미놀타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각 고객의 프린트 볼륨 및 니즈에 맞는 제품을 컨설팅할 수 있으며, 특히 색감표현 측면에서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다. 제품 설치 후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또한 자사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용 환경에 맞는 디지털 인쇄기 제품군들을 개발해 왔다. 단순한 인쇄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고품질을 추구하면서도 인하우스로 대부분의 공정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니카미놀타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주)리코코리아

일본 IT기업 RICOH그룹의 한국법인 (주)리코코리아 부스에는 (주)이즈유킴퍼니, (주)한마루시스템, (주)이스텍솔루션 등 리코 파트너사들이 트랜잭션 시장 및 상업 인쇄 시장을 위한 흑백 프로덕션 프린터 RICOH Pro 8320S와 고품질 프로덕션 컬러 인쇄기



▲ 디지털 라벨 인쇄기 아큐리오라벨 230을 소개한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 코리아(주)



▲ (주)리코코리아와 (주)이즈유킴퍼니, (주)한마루시스템, (주)이스텍솔루션 등 리코 파트너사들의 합동 부스 전경

EXHIBITION

RICOH Pro C7210SX, 컬러 프로덕션 프린터 RICOH Pro C5310S 등의 디지털 인쇄기와 평판 커팅 플로터 등 이에 적합한 디지털 후가공 장비들을 소개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양한 별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컬러 프레스 RICOH Pro C7210SX는 ▲최대 85/95ppm의 생산성(360gsm까지 동일 속도), ▲월 최대 출력량 최대 24만 페이지, ▲텍스처, 메탈릭, 합성수지, 스티커 등 다양한 미디어 지원, ▲용지 크기 최대 330x700mm 지원(자동양면), 330x1260mm 지원(단면), ▲5색 스테이션 추가로 클리어(Clear), 화이트(White), 네온 옐로(Neon Yellow), 네온 핑크(Neon Pink)의 별색 지원, ▲초정밀 레이저 기술인 VCSEL Technology 기반의 2400x4800dpi 해상도 등의 특징으로 오프셋 인쇄와 견줄만한 인쇄 품질을 자랑하며 보다 높은 가치의 프리미엄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주)벨로이

최근 미국 마크앤디와 공식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디지털 라벨 솔루션 전문기업 (주)벨



▲ (주)벨로이가 선보인 마크앤디의 하이브리드 인쇄 장비 디지털 프로3

로이는 이번 전시에서 마크앤디의 하이브리드 인쇄 장비 디지털 프로3(Digital Pro3)과 롤투롤 디지털 나이프 라벨 커팅기 듀오블레이드 WXII 등을 선보였다.

디지털 프로3은 코니카미놀타의 디지털 인쇄 엔진과 세미로터리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장비로 “디지털로 인쇄하고 아날로그로 후가공한다”는 국내 소량 생산 업체의 니즈를 가장 크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비이다. 세미로터리 모드로 풀 로터리 커팅 영역의 95% 길이까지 커팅이 가능한 유일한 장비로, 반칼은 물론 완칼 작업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도 장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V 코팅과 LED 램프를 이용한 금박, 은박, 홀로그램 등의 호일링(Foiling)도 매우 손쉽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라벨을 포함한 이중 라벨, 연포장재, 티켓, 카드, 태그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다. 코니카미놀타를 디지털 인쇄 엔진으로 선택하여 1200x1200dpi의 고해상도 품질 인쇄를 제공하고, 디지털 인쇄 엔진 앞뒤로 플렉소 인쇄 모듈 장착으로 기존 디지털 인쇄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백색 출력, 부분 광택 효과(Spot Varnishing), UV 코팅 등이 가능하다. 2000M 라벨 작업 시, 출력 및 후가공까지 약 85분 소요되며 디지털 인쇄 없이 플렉소와 세미로터리만 사용 시 분당 33.5m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다.

(주)바이텍테크놀로지

디지털 기반의 소량 다품종 컬러라벨 출력시스템인 Anytron(애니트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소량 다품종 인쇄에 적합한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하고 있는 (주)바이텍테크



▲ (주)바이텍테크놀로지가 새롭게 선보인 고성능 디지털 인라인 라벨 프레스 애니트론 ANY-JET III

놀로지는 새롭게 론칭하는 고성능 디지털 인라인 라벨 프레스 애니트론 ANY-JET III를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제품은 한대의 장비로 중대형 규모의 라벨 생산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수지판, 다이 제작 및 교체로 인해 시간 소모가 큰 아날로그 장비와 달리 디지털 프린팅과 디지털 레이저 다이커팅이 인라인으로 연결된 100% 트루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업 전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신속한 라벨 생산이 가능하다. 디지털 풀컬러 인쇄부터 레이저 커팅, 후가공 기능까지 라벨 생산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전용 소프트웨어인 ANY-FLOW 사용으로 디지털 컬러라벨프린터와 레이저 다이커팅 장비를 한 개의 소프트웨어에서 손쉽게 운용 및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자동작업변환모듈(AJC)이 탑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작업을 작업자 개입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등한 생산성을 자랑하며 매우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 플렉소 라벨인쇄 장비

최근 국내외적으로 라벨·포장 인쇄시장에서

친환경 인쇄 관련 규제 강화로 기존 그라비아 인쇄의 환경적인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제로 플렉소 인쇄기가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전시에서 (주)방성기계 플렉소 인쇄기 신제품을, DKSH코리아(주)는 플렉소 제판 시스템을 소개하며 주목 받았다.

(주)방성기계

국내 라벨 인쇄기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방성기계는 최근 환경문제로 감소 추세에 있는 그라비아 인쇄기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플렉소 인쇄기 BEF-340/450/550/650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자동 핀 맞춤 기능으로 최대한 각 유닛의 핀트를 근사치에 맞춰주며 레지스터 기능으로 인쇄물 오차를 줄여주고, 기존의 실린더와 기어방식이 아닌 슬리브 방식으로 최대한의 공차를 줄여 좌우 편차치를 줄여준다. 또한, 별도로 냉각기가 필요 없는 공냉 방식으로 추가적인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공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 방성기계에서 새로 개발한 플렉소 인쇄기 BEF-340/450/550/650 시리즈

EXHIBITION

DKSH코리아(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DKSH의 한국법인 DKSH코리아(주)는 이번 전시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품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라클론(miraclon) 플렉소 제판 시스템 KODAK FLEXCEL NX Wide 5080 System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종이 및 필름 연포장과 박스 및 인쇄지, 스티커 및 라벨 등 여러 분야의 후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와 다양한 리사이클링 장비들을 함께 소개했다.



▲ 미라클론(miraclon) 플렉소 제판 시스템을 소개한 DKSH코리아(주)

■ 패키징 솔루션 및 박스 패키징 기술

이번 K-PRINT 2022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giPrint), 한국텍스타일전시회(K-Textile), 한국사인·광고전시회(K-Sign&AD) 등 6개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며 관련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노렸다.

한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에 참가한 골든팩키지, 문우사, 시노하라, 에이스기계 등

은 최신 기술이 탑재된 패키징 솔루션 및 박스 패키징 기술을 선보였다.

골든팩키지(주)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종이용기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성형 기계와 금형까지도 자체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골든팩키지(주)는 이번 전시에서 식품분야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친환경 종이 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종이 뚜껑 성형기 GPCM 4와 분리형 트레이 성형기 GPTM 등의 장비를 시연과 함께 선보였다.

특히, 분리형 트레이 성형기 GPTM은 아시아권에서는 골든팩키지가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필름과 종이로 쉽게 분리되는 분리형 트레이를 제작하는 장비이다.

골든팩키지 조인석 대표이사는 “분리형 트레이 성형기 GPTM으로 제작된 트레이는 식품을 담는 종이 트레이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할 때 종이와 필름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친환경 제품 확대를 위해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종이 용기로의 대체를 추진하고 있는



▲ 플라스틱 용기를 친환경 종이 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용기 성형기를 선보인 골든팩키지(주) 조인석 대표이사

국내외 주요 식품 브랜드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비”라고 밝혔다.

(주)문우사

각종 인쇄, 제본, 패키징 설비를 수입·유통하는 전문무역업체 (주)문우사는 이번 전시에서 해외에서 호평 받고 있는 중국 리 샹룬유안(Lishunyuan)사의 자동 싸바리기 신제품과 사일리(Saili)사의 V커팅기를 선보이고, 이들 설비들의 전후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서브메인 솔루션도 소개했다.

리 샹룬유안사의 자동 싸바리기 신제품은 1대의 설비를 사용해서 2가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으며, 작업수량 및 종류에 따라 한 개의 제품을 2배수로 생산할 수도 있고, 소량 제작 시 성형기(F5, 헤드) 한 대만을 사용할 수도 있어 생산시스템의 유연성 확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 받고 있다.



▲ 자동 싸바리기 신제품과 V커팅기를 선보인 (주)문우사

(주)시노하라코리아

9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고성능 인쇄 및 패

키징 장비 제조사 일본 시노하라의 한국법인 (주)시노하라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완전자동 디지털 박스머신을 비롯해 완전자동 탈지기, 소형 골판지 디지털 머신, 다이 커팅용 전자동 주름 매트릭스 커팅머신 등을 선보였다. 60가지 이상의 박스 디자인이 내장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골판지 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완전자동 싱글패스 디지털 박스머신은 이전처럼 여러 공정을 거쳐 대량으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 오퍼레이터가 골판지 박스 디자인을 선택하고 박스 사이즈를 입력하면 세팅에서 생산까지 자동으로 마무리하면서 1도 플렉소 인쇄까지 할 수 있어 소량 박스 주문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다.



▲ (주)시노하라코리아가 선보인 완전자동 디지털 박스머신

■ 후가공 솔루션

최근 인쇄시장에서는 패키지 박스, 포토북과 웨딩앨범, 게임티켓, CD케이스, 책 표지, 홀더, 카탈로그, 명함, 캘린더, 브로슈어 등의 인쇄작업에서 보다 정교하고 다채로운 후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K-PRINT 2022에서 에이쓰리테크,

EXHIBITION

한일듀프로, 이츠유킴퍼니 등은 편의성과 빠른 작업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인쇄현장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후가공 장비들을 선보였다.

에이쓰리테크(주)

지난해 전시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비투스(BEATUS) UV Spot Varnish & Foil Printer를 출품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에이쓰리테크(주)는 보다 완성도를 높인 3세대 장비 비투스 AFV6를 선보였다. 이 장비는 별도 동판 없이 데이터만으로 인쇄되는 디지털 후가공 인쇄장비로, 인쇄된 미디어에 핀 맞춤 기술을 적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입체적인 바니시 코팅과 박(foil) 인쇄 작업을 수행하고, 330x650mm 사이즈 인쇄물을 평균 3초에 1장씩 작업할 수 있다. 품질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종료 후 헤드를 진공 압착으로 보존, 빛과 공기를 차단한 상태를 유지해서 헤드 잉크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새로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작업 시작 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헤드 크리너 작업이 불필요하며, 작업 준비 시간 단축과 헤드 청소용 잉크 소모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한, 리코 GEN5 잉크젯 헤드와 최단거리에 LED 경화장치를 배치해서 잉크 분사 후 즉시 경화되어 깔끔한 인쇄 테두리와 선명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수 제작된 버큘벨트 이동방식은 스쿠로 인한 핀 맞춤 예러와 코팅 후 종이 휨 현상을 방지한다.

한일듀프로(주)

1982년 창립 이래 디지털 인쇄기와 디지털 스폿 UV 코팅시스템, 접지기 등 다양한 인쇄 및 후가공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한일듀프로(주)는 이번 전시에서 UV 잉크젯 방식의 코팅으로 인쇄물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듀프로 디지털 스폿 UV 코팅시스템 DDC-810과 디지털 출력물을 위한 올인원 후가공 솔루션 멀티 피니셔 DC-618, 콤팩트한 일체형 옥소(OXO) 멀티 스킵 누름선/접지 시스템 등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후가공 장비들을 선보였다.

특히, 디지털 스폿 UV 코팅시스템 DDC-810은 업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내구성, 편의성이 강화된 쉬운 구동, 콤팩트한 사이즈로 많은



▲ 3세대 디지털 후가공 인쇄장비를 선보인 에이쓰리테크(주)



▲ 디지털 스폿 UV 코팅시스템 DDC-810 등 후가공 장비들을 소개한 한일듀프로(주)

각광을 받고 있다. UV 잉크젯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에서 지정된 부분에 광택코팅을 실행, 시각뿐 아니라 촉각까지 만족시켜 인쇄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며, 1장부터 가공할 수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에도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이츠유킴퍼니

디지털 인쇄기와 후가공 장비 유통 전문기업 (주)이츠유킴퍼니는 리코(RICOH)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부스에서,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불칸(VULCAN) 자동급지 시트 라벨 커터 SC-350과 평판 커팅 플로터 FC-500VC, 바이컷(VICUT) SRA3 카드 커터 CC-330, 프로보(PROBO) 소형 종이/OPP 밴딩기 등 디지털 인쇄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후가공 장비들을 소개했다.

불칸 SC-350 자동급지 시트 라벨 커터는 350g의 두꺼운 용지도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커팅칼의 강한 내구성과 높은 정확도, 빠른 처리 속도가 강점이다.

포장박스과 라벨, 카드 제작에 최적의 성능을



▲ 자동급지 시트 라벨 커터와 평판 커팅 플로터 등 후가공 장비들을 선보인 (주)이츠유킴퍼니

발휘하는 평판 커팅 플로터 FC-500VC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채용해서 급지 과정에서 용지 틀어짐이 발생해도 QR코드로 칼선 위치를 인식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준다. 또한 핫폴더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 1대의 컴퓨터로 여러 대의 커팅 플로터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 기타(한국포장협회 회원사)

한편, 이번 K-PRINT 2022에는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광성CRT(주), (주)뉴스엔지니어링, (주)대진화학도 참가해 활약했다. 광성CRT(주)는 신소재 롤러 신제품을, (주)뉴스엔지니어링은 인쇄 검사기 및 코팅 관련 장비들을, (주)대진화학은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광성CRT(주)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쇄용 및 산업용 고무롤러를 사용용도에 맞게 최상의 품질로 제공하고 있는 광성CRT(주) (대표이사 김원중)는 이번 전시에서 직접 개발한 바이브레이터 롤러(Vibrator Roller) 신제품과 독일의 3대 인쇄 고무롤러업체로 손꼽히는 사우어(SAUER)사가 신소재 엘라스토머 재질로 만든 롤러 신제품을 소개했다.

광성CRT가 이번에 선보인 바이브레이터 롤러는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오던 것을 광성CRT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내며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금액이 비싸고 납기가 늦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

EXHIBITION



▲ 직접 개발한 바이브레이터 롤러와 독일 사우어사의 롤러 신제품을 소개한 광성CRT(주)

해 국내 인쇄업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성CRT측은 “작년부터 인쇄업체에 적용하기 시작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DURAPRINT라는 신소재 엘라스토머 재질로 만들어진 독일 사우어사의 롤러 제품도 소개했다. 광성CRT는 지난해 사우어사와 협력 계약을 맺고 이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광성CRT측은 “일반 고무롤러와는 차원이 다른 내약품성과 세척 능력으로 세척제, 잉크, 종이 낭비를 줄이고 작업자들의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유럽에서는 이미 수많은 인쇄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 인쇄의 확대 흐름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뉴스엔지니어링

1996년 설립 이래 연포장 업계에 관련 장비들을 수입해 공급하며 국내 연포장 필름업계의 인쇄 품질과 코팅 기술 향상에 기여해 온 (주)뉴스엔지니어링은 이번 전시에서 ▲일본 Futec사의 인쇄 이물 검사기 및 필름 스크래치 이물 검사기, ▲일본 Jyohoku사의 T-die,

공압출 T-die, 오토 die, ▲독일 Eltex사의 정전 인쇄 장치 및 정전기 제거 장치, ▲이태리 RE사의 가이딩 시스템, 텐션 컨트롤, 파우더 브레이크, 비디오 검사 장치, ▲이태리 Svecom사의 에어 샤프트, 에어 척, 세이프티 척, 카본롤, ▲스웨덴 Kelva사의 이물 제거 장치, ▲Vetaphone사의 코로나 시스템, ▲덴마크 Viscon사의 점도 컨트롤, ▲일본 Tokuden사의 유도 가열롤, ▲일본 Hikoyama사의 석션롤 등 세계 우수 브랜드의 다양한 장비들을 소개했다.

뉴스엔지니어링 정인재 대표이사는 “특히, Futec사의 인쇄 이물 검사 장치는 현재까지 검사가 되지 않던 미세한 색 빠짐, 연속 닥터 줄, 탈자 색상 농도가 검사 가능한 마스터 기준 검사 장치로, 인쇄 이물 검사기를 검품기에 설치하여 이물 결점에 라벨을 부착하여 제대기에서 선별할 수 있어 검사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하며, “당사는 언제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 검사기 및 코팅 관련 장비들을 공급해 국내 연포장 업계의 인쇄 품질과 코팅 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다양한 인쇄 검사기 및 코팅 관련 장비들을 소개한 (주)뉴스엔지니어링 정인재 대표이사와 정은성 실장

(주)대진화학

1971년 국내 최초로 플렉소 수성 잉크 개발을 시작으로 50년 이상 수성 잉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잉크 제조기업 (주)대진화학은 이번 전시에서 201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2020년 특허 등록까지 마친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소개했다.

전시부스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자사의 친환경 수성 잉크로 제작된 식품 필름 포장재와 건축 바닥재, 인조대리석, 필름 시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인쇄 샘플을 선보였다.

대진화학 이병찬 대표이사는 “대진화학의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는 모든 필름에 인쇄가 가능하고 기존 유성 잉크로 인쇄하던 기계로도 정확하고 깨끗한 인쇄가 가능하다”며, “친환경 성분만으로 제조돼 유해화학물질이 전혀 없으며 ZDHC(유해화학물질 제로배출협회)에서도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포장 인쇄업체와 건축 바닥재, 가구 필름 인쇄업체, 텍스타일 인쇄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 특징으로 인해 인테리어와 텍스

타일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PRINT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학·연의 높은 관심과 국내외 참가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폐막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총 13개국에서 157개사가 참가해 최신 인쇄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에는 3일 동안 17,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K-PRINT가 국내 최고 권위의 ‘인쇄인의 축제’임을 재확인했다.

출품업체 중 라벨과 포장 인쇄 관련 업체의 참가가 증가한 특징을 보였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인쇄 및 포장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용한 다품종 소량 인쇄 기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나갈 비전을 제시했다. 



▲ 특허 받은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소개한 (주)대진화학